

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River & Culture



박맹우 | 울산광역시장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성과

### 태화강 현황

태화강은 울산광역시 서북쪽 가지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울산 도심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가는 46.02km의 하천이다. 구·삼호교를 기준으로 하류구간의 국가하천 11.27km와 상류지역의 지방하천 34.75km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의 국가하천 중 발원지와 끝지점이 동일 지자체 내에 있는 유일한 하천이다. 유로면적은 636.96km<sup>2</sup>(울산시 면적 1,057km<sup>2</sup>의 60.1%)이며, 울산시 인구 115만명 중 60만명이 태화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태화강의 수질은 BOD 2ppm 이하의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류 64종, 조류 127종, 식물 468종 등 7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 경제성장과 수질오염

60년대 경제성장의 역동성에 가려진 공해도시 울산의 오



태화강 물고기 떼죽음

명과 함께 태화강은 생명력을 상실하였다. 대한민국 근대화 이후 오·폐수가 흘러들어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쓰레기가 쌓여



생활오수 유입



공장폐수 유입

가면서 급격한 수질오염이 진행되었으며, 1995년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태화취수탑의 가동을 중단하고 낙동강 용수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철새는 떠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악취가 진동하면서 죽음의 강으로 시민들이 외면하는 강으로 전락하였다.

### 이·치수 중심의 하천관리와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으로 수변공간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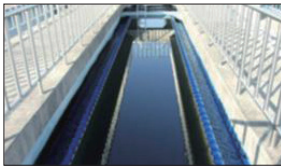
홍수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1989)상 심리대숲 제거가 결정되었으며, 자연녹지지역인 태화들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1994)되어 친수공간이 상실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둔치 이용과 이·치수 위주의 콘크리트 호안 조성은 삭막한 도심환경을 대변하였다.

## 태화강 살리기 본격 추진

2002년 민선3기의 출범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기반위에 생태 효율성을 도입한 태화강 살리기를 착수하고, 에코폴리스 울산선언(2004년)과 태화강 마스터플랜(2005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태화강 살리기의 관건은 우선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 및 하천바닥의 퇴적된 오니 제거였다. 이에 총투자비의 60%인 5,26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친수공간 조성에는 40%인 2,968억원이 소요되었다.

## 수질개선 사업

### 하수처리장 확충 및 관거 정비



안양하수처리장



방어진하수처리장



지선관거 부설

### 퇴적오니 준설 및 유지용수 확보



불법 어로시설 제거

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상하류에 하수처리장을 확충하였다. 현재 안양하수처리장(60천톤/일) 및 방어진하수처리장(100천톤/일)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가정오수관 연결, 지선관거 부설 등 4,000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다.

하류에 방치된 불법 어로시설을 제거하고 8.8km 구간에 수십 년간 강바닥에 쌓여있던 50~100cm 정도의 퇴적오니 150만톤을 준설하였고, 상류지역 3



퇴적오니 준설



하상여과수 개발

개의 댐 영향으로 갈수기에 부족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1일 40,000톤의 하상 여과수를 개발하였다.

## 태화강대공원 조성

### 태화들 보전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 전개

태화들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홍수에 취약하고 시민정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학계와 시민단체는 택지개발 계획의 수정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시민 감사권을 발동, 시민들이 직접 땅을 구입해 보전하는 방안으로 '태화들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 하천구역 편입과 태화강대공원 조성



태화강대공원 조성 전



태화강대공원 조성 후

2005년 9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주거지역인 태화들을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고 186천㎡의 사유지 1,000억원(국비 727, 시비 273)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고, 391동의 농사용 비닐하우스와 3,500여톤의 쓰레기를 제거한 후 태화강대공원 조성에 착수하여 2010년 8월 준공하였다. 그리고 531,000㎡의 태화강대공원에는 심리대숲, 대나무 생태원, 실개천, 야외공연장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태화강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 생태하천 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십리대밭교



태화강전망대



생태문화갤러리

명촌교~선바위 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였으며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였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 다리인 십리대밭교와 가동이 중단된 취수탑을 리모델링한 태화강 전망대, 교각 하부를 정비한 생태문화 갤러리를 조성하였다.



선바위공원

삼호대숲을 확대하여 철새(백로, 떼까마귀 등)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생태하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새공원 조성 및 태화강변을 따라 석남사 입구까지 100리 자전거길을 연결하고 상류지역의 선바위공원과 함께 생태하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염원을 차단하였으며, 태화루 역사공원 건립과 도심구간의 하천환경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삼호대숲을 확대하여 철

### 성과

####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철새가 떠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6등급의 수질이 1등급으로 개선되었다. 사라졌던 연어와 은어, 황어가 다시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회복되었다. 특히, 어류와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지난 30년간 사라졌던 재첩이 태화강 전역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향후 추진계획



태화루 역사공원



태화강 철새공원

태화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26개 사업 4,6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 마을까지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를 확충하고 곽화하수처리장과 농소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

#### 태화강에 서식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생물자원 3보(寶)



백로 서식지

삼호대숲에 여름이면 7종의 백로, 6,000여 마리가 동지를 틀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식지가 형성



떼까마귀 월동지



바지락 종패 공급

되었으며, 겨울이면 단일 서식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떼까마귀 46,000여 마리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는 태화강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다. 하류에는 전국 최대의 바지락 종패 공급지로 남해안 수요량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태화강대공원



태화강대공원

장기간 무관심과 방치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고 생활의 활력을 키워나가는 도심속 생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초화단지(16만㎡)가 조성되었다(봄 초화단지 방문객 446천명, 온라인 매체(카페, 블로그 등) 264건).

###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급부상



전국수영대회



세계드레곤보트 대회

강에서는 유일하게 2,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수영대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용선대회, 조정, 카누, 수상스키 등 수상 스포츠를 한곳에서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태화강 물축제로 승화



태화강 수상스키

하였다. 2009년 16만명이 참여한 제4회 세계 드레곤보트 대회를 호수가 아닌 도심 속 강에서 개최하여 각국 선수단에게 큰 조명을 받았다.

### 시민과 하나 되는 휴식과 건강, 만남의 공간으로 정착

걷기대회, 국제 설치미술제, 울산 고래축제 등 매년 80여회 50만명이 참가하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10회 한국 강의 날 대회,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녹색생활실천 전국대회 등 전국 규모의 행사를 통해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 확산하였다. 한국 강의 날 1,000명, 새마을 지도자 대회 5,000명, 녹색생활 실천 대회 7,000명 등이 참여하였으며, 평일 15천여명, 주말 24천여명이 이용하는 도심 생태공원으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다.

### 태화강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의식 고취

최근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매년 '개선'(82.1%) 되었다는 의견이 '악화'(2.3%) 되었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울산지역 34개 단체가 태화강 보전·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96개 기업·단체가 1사 1하천 운동에 스스로 참여하고 있다. 🌐

Ulsan for you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